WEEKLY IBK 경제브리프
(522호) 2017-11-07
IBK경제연구소

인도의 경제개혁에 따른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가능성

□ 인도는 최근 3년간('14~'16년) 7%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, 중속 성장 시대에 진입한 중국을 대신해 장차 세계 경제를 이끌 기대주로 관심을 받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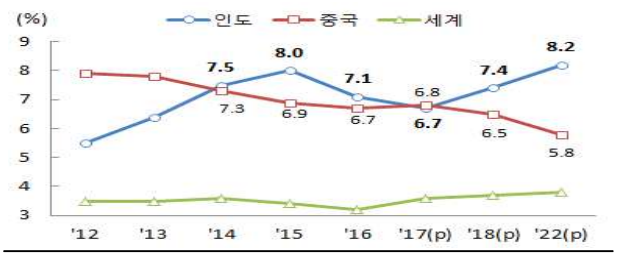
○ 거대한 내수시장(인구수 약 13억명), 양질의 노동력(생산가능인구 약 8.5억명, IT고급인력과 低인건비 인력의 공존), 정부의 적극적 성장 정책 등은 앞으로도 인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주요 요인들로 평가

- IMF는 '16.3월 인도를 세계 경제 침체 속 'Bright Spot'이라고 평가하며, 향후 10년간 7%대 고속 성장을 구가할 것이라고 전망

○ 다만, 열악한 기업 경영 환경 인프라와 복잡·불투명한 행정 등은 인도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지목

- 인도의 기업 경영 환경 순위는 총 190개국 중 130위에 불과('16년 기준)

< 인도의 실질경제성장률 >



자료 : IMF('17.10)

< 인도의 기업 경영 환경 순위('16년) >

중국·아세안5와의 비교

순위	국가	순위	국가
23위	말레이시아	99위	필리핀
46위	태국	**130위**	**인도**
78위	중국	170위	미얀마
82위	베트남		

자료 : World Bank

□ 모디 총리는 집권('14.5월) 이후 인프라 확충, FDI 규제 완화, 세제개혁 등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 정책들을 추진 중

○ (인프라) 도로·항구 확충 및 전기·통신서비스 확대 등 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을 집중 증액

- 2017/2018 예산안에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전년(3조 5,863억루피)대비 10.4% 증가한 3조 9,613억루피를 편성(전체 예산의 18.4%, 무역협회 재인용)

○ (FDI)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지분 규제 완화, 정부 승인 요건 완화 등 적극적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시행

※ 모디 집권 전후 3년간 외국인 투자 유입규모(억루피) : (前) 818.4 < (後) 1,144.1

- 철도(0→100%, '14.8월), 방위(49→100%, '16.6월) 등 주요 분야에서 외국인의 투자 지분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, 절차도 정부 승인에서 자동 승인으로 대거 변경

○ (세제개혁) '17.7.1일 통합간접세(GST, Goods and Services Tax) 제도 시행을 통해 29개 주(州)별로 상이한 간접세율을 통합·일원화

※ 그간 인도는 복잡한 세제로 인해 상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지방 간 거래하는 것이 더 까다롭다고 할 정도로 기업 환경에 악영향

- 생필품에는 낮은 세율,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, 상품·서비스를 5가지 품목군으로 나눠 세율을 차등 적용(0%, 5%, 12%, 18%, 28%)

□ 우리 정부도 수출 및 투자 다변화를 위한 시장으로서 인도를 주목하고 있으나, 아직 對인도 수출·투자 규모는 미미한 상황

○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각각 116억달러, 3.8억달러('16년 기준)로 전체 대비 2% 내외에 불과

※ 對인도 수출(억달러) : 119('12)→114('13)→128('14)→120('15)→116('16)→107('17.8)

※ 對인도 투자(억달러) : 4.6('12)→5.7('13)→3.9('14)→3.8('15)→3.8('16)→2.3('17.6)

- 한-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)이 '10년 1월 발효되었으나, 타 FTA 대비 낮은 자유화율*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 등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

* 한-인도 CEPA 상품양허 수준(품목수, %) : 인도 85, 한국 93 / 한-미·EU·페루 FTA : 100

- 다만, 인도 현지에 직접 진출하는 기업수는 증가 추세

※ 對인도 투자 신규법인수(개) : 52('12)→41('13)→39('14)→54('15)→55('16)→42('17.6)

□ 다만, 최근 한-인도 CEPA 개선 협상 진행, 인도의 지속적인 기업 경영 환경 개선 등으로 향후 교역 및 투자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

○ 한-인도 CEPA 개선 협상은 '16.6월 개시 이후 3차까지 진행되었으며, 최근 양국은 개선 협상을 보다 가속화하기로 합의(산업통상자원부)

○ 인도 진출 국내기업의 74.3%가 모디 총리 집권 이후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, 86.0%는 향후 5년간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(한국무역협회, 408개사 중 142개사 응답)

-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(26.7%)과 전기·전자제품(19.8%)이, 그 외 분야에서는 건설업(15.0%), 부동산·임대업(12.2%), 전기·가스·수도사업(9.9%)과 같은 인프라 관련 분야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

(작성자 : 중소기업팀 대리 김진우 kjw0903@ibk.co.kr / ☎02-729-7374)